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石製托鉢〉 소개

강경남(姜京男)

I. 머리말

II. 〈석제탁잔〉의 입수 경위와 재질 분석

1. 입수 경위
2. 재질 분석

III. 〈석제탁잔〉의 조형적 특징

IV. 자기제 잔탁과의 비교를 통해 본 제작 시기

1. 생산유적
2. 해저유적
3. 소비유적

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磁 研究-편년과 성격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21(2004); 「청자사자장식향로에 관한 시론적 고찰」, 『동원학술논문집』 11(2010) 등

托蓋은 자기제가 가장 많고 일부 금속제와 목제로 제작된 것만이 알려져 왔으나,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에 선보인 〈석제탁잔〉은 우리나라에서 석제탁잔이 공개적으로 소개된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탁잔은 잔과 잔 받침[蓋托]이 한 벌로 구성된 기종으로, 고려시대에 磁器製, 金屬製, 木製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잔 받침 위에 올라가는 잔은 대부분 구경이 10cm 내외이다. 잔은 그 형태에 따라 기층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는 완형태, 반구형, 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잔탁은 굽이 있는 접시형태로, 잔을 받치는 데 사용되었다. 특히 잔이 놓이는 ‘蓋座’는 잔탁의 역할을 나타내주며, 전체적인 기물의 형태까지도 결정짓는다. 잔탁의 경우 잔과 달리 독립된 기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물의 ‘받침[托]’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용성을 고려한 특수한 목적과 조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탁잔은 그것을 사용할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배경, 사용계층의 취향, 제작기술 등이 반영되어 있고 완전한 한 벌로 구성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은 1900년대 제실박물관(후에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 확보 정책에 따라 구입되었으며 그 중 덕수 1347 탁잔은 출토지가 ‘개성 부근’이라고 되어 있다. 재질분석 결과 綠泥石으로 밝혀졌는데, 이 암석은 입자가 조밀하고 경도가 높지 않아서 공예품 제작에 선호하는 재질이다.

본고에서는 석제탁잔의 제작 시기를 유추하기 위해 자기제 잔탁 가운데 잔모양 잔좌를 갖춘 예를 중심으로 생산유적, 해저유적, 소비유적 출토품을 검토하였다. 생산유적은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 진서리, 용인 보정리, 대전 구원동 등 고려중기 가마터에서 주로 출토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저유적에서는 고려중기에 해당하는 고급 청자가 다량 출수되었던 보령 원산리와 진도 명량대첩 해역에서 확인되어 수도 개성의 최상위 계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유적 출토품은 개성의 고려궁성, 파주 혜음원지, 강화에 있는 희종 석릉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편년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제 잔탁 편년을 근거로 삼은 것은 어려운 시도였지만 비교 결과, 잔모양 잔좌를 갖춘 청자 잔탁의 경우 대부분 고려중기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확인되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의 편년도 같은 시기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잔탁이라는 기종을 석제·자기·나무·금속 등 다양한 재질로 번안하여 제작했던 고려시대 공예품 제작의 한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소재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재질 간 위계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박물관 소장품 중 ‘개성 부근’ 출토품을 심도 있게 조사하면 〈석제탁잔〉과 같은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등장하여 고려시대 공예사 연구에 중요한 指標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托蓋, 蓋托, 綠泥石, 德壽品, 開成 附近, 高麗中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石製托盞〉 소개

강경남(姜京男)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기존의 托盞은 자기제가 가장 많고 일부 금속제와 목제로 제작된 것만이 알려져 왔으나,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에 전시된 〈석제탁잔〉은 재료의 신선함과 정제된 기형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석제탁잔이 공개적으로 소개된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탁잔은 잔과 잔 받침[盞托]이 한 벌로 구성된 기종으로, 고려시대에 磁器製, 金屬製, 木製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잔탁에 음각된 이룡문을 분석하여 그것의 용도를 의례기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¹ 잔 받침 위에 올라가는 잔은 대부분 구경이 10cm 내외이다. 잔은 그 형태에 따라 기층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는 완형태, 반구형, 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잔탁은 굽이 있는 접시형태로, 잔을 받치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잔이 놓이는 ‘盞座’는 잔탁의 역할을 나타내주며, 전체적인 기물의 형태까지도 결정짓는다. 잔탁의 경우 잔과 달리 독립된 기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물의 ‘받침[托]’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용성을 고려한 특수한 목적과 조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탁잔은 그것을 사용할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배경, 사용계층의 취향, 제작기술 등이 반영되어 있고 완전한 한 벌로 구성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유물로 손꼽혀 왔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의 재질과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1 김윤정, 「12세기 고려청자 螭龍紋의 圖像의 특징과 연원」, 『미술사학』35(2018); 이준광, 「고려 螭龍文 청자의 특징과 용도」, 『미술자료』92(2018).

2 이운진, 「高麗時代 瓷器盞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8), p.1.

축적된 조사 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주로 자기제 탁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석제탁잔〉은 기존 고려시대 공예사 연구에 보다 다양한 재질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석제탁잔〉의 입수 경위와 재질 분석

1. 입수 경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은 소장품번호가 덕수 398과 덕수 1347로 되어 있다. 덕수 398은 같은 형태로 된 잔과 잔탁이 두 벌이고, 덕수 1347은 한 벌이 전한다.

덕수 398 석제탁잔은 1908년 6월 8일에 시라이시 마스히코(白石益彦)³로부터 구입하였지만 정확한 출토지역은 명시되지 않았다. 덕수 1347 석제탁잔은 1909년 3월 11일에 역시 동일인물인 시라이시 마스히코로부터 구입하였다. 소장품카드에는 경기도 개성부근에서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덕수 398 석제탁잔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古蹟圖譜』 9권에도 石製注子 한 점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도 1). 도판 명칭은 각각 “石製水注”, “帶綠褐玉製托盞”으로 되어 있고 모두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이다. 탁잔의 전체 높이는 3寸 5分(10.3cm)이며, 주자는 7寸 5分(21.3cm)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재질은 석제이지만 크기는 일반 주자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한 화면에 실린 석제주자와 탁잔은 매우 드문 예에 속하는 재질과 기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도 1. 『조선고적도보』 권9에 게재된 석제탁잔과 석제주자

3 구입된 덕수품 중 시마오카 타마키치(島岡玉吉) 다음으로 많은 문화재를 판매했던 시라이시 마스히코는 1900대 초반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골동품상이다.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국보 제95호) 등 고려청자 외에도 다양한 문화재를 판매하였다[손영욱, 「이왕가박물관 도자기 수집 목록에 대한 고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5(2018)].

4 석제주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장 중·근세관 고려1실에 전시되어 있으며 소장품번호는 덕수 2435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세 벌의 석제탁잔은 모두 덕수품이다. 덕수품은 19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실에 전해 내려오는 서화류·도자기·금속공예품·가마와 깃발 등 약 8,600점을 바탕으로 1908년 설립된 제실박물관은 그 해부터 유물 구입을 통해 본격적인 소장품 확보에 나섰다. 이왕가박물관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의 회고록에는 당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1908년 1월부터 먼저 진열품의 수집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이 때 경성에 고려시대의 분묘에서 나온 천연한 고려문화를 볼 수 있는 다수의 도자기·금속품·옥석류가 많이 매매되고 있어서, 그것을 好機로서 그러한 출토품과 함께 삼국시대·신라통일시대의 작품과 관련 있는 중요한 彫像의 구입에 노력하고, 혹은 조선시대의 회화·공예품 등도 수집했다.⁵

제실박물관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이왕가박물관’, 1938년 ‘이왕가미술관’으로 변경되었다가 해방 후 덕수궁미술관이 되었다.⁶ 1969년에 국립박물관과 통합되면서 덕수궁미술관의 소장품이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석제탁잔은 20세기 초반 제실박물관(후에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 확대정책에 따라서 구입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2. 재질 분석

덕수 398과 덕수 1347은 모두 석제로 만들어졌으며, 잔과 받침으로 구성된 탁잔이다. 두 유물은 재질과 기종이 같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릇의 세부적인 모습이나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석제의 표면 등은 차이가 있다. 덕수 398의 석제 표면은 매끄럽고 전면에 걸쳐 물결무늬가 확인된다. 색조는 어두운 녹갈색을 띤다. 반면 덕수 1347 탁잔은 덕수 398에 비해 표면이 거칠고 전면에 작은 반점이 있다. 색조는 밝은 황록색이다.

특별전 전시를 앞두고 보존과학부에서 재질 분석을 실시한 결과⁷ 추정 재질이 두 점 모두 綠泥石으로 나왔다. 녹니석(Chlorite)은 ‘녹색’을 뜻하는 그리스어 chloros에서 유래하였으며, ‘녹색 점토 광물’을 뜻한다. 광물의 색은 녹색, 흑색, 녹회색 등 다양한 녹색을 띠며 진주광택이 있다.⁸

5 小宮三保松, 「緒言」,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1912)[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2000), p.88, 재인용].

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박물관 100년사 : 1909-2009』(2009), pp.12-13.

7 세척과 분석은 각각 보존과학부 조연태 학예연구사(현 국립나주박물관), 노지현 학예연구사가 담당하였다.

8 김지영, 이찬희, 김진영, 「보성 거석리 및 해남 분토리 유적 출토 녹니석제 구슬의 재질특성과 원산지 해석」, 『보존과학회지』 23(2008), p.30.

육각판상 모양의 결정을 갖기도 한다. 얇은 조각으로 한 방향으로 깨지고 비료와 도자기 원료로 사용된다. 입자가 조밀하고 경도가 높지 않아 공예·조각 등에서 선호하는 석재이며, 기념비·비석·각종 석판 제작에도 애용되고 있다.⁹

표 1. 〈석제탁잔〉 비파괴분석 결과

덕수 398	덕수 1347
XRF 분석 결과: Si, Fe, Mg, Al, Ca XRD 분석 결과: Clinocllore 추정 재질: 녹니석	XRF 분석 결과: Si, Fe, Mg, Al XRD 분석 결과: Clinocllore 추정 재질: 녹니석

녹니석은 보석학적 가치가 높은 장식석은 아니지만, 재질이 부드러워 가공이 쉽고 색상과 광택이 미려하여 선사시대부터 장식용 옥기의 대체제로 선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 알려진 녹니석 산출지로는 충남 공주, 청양, 홍성 및 예산 일대가 있다. 이 지역에는 사문석과 석면 또는 활석을 생산한 광산이 존재하며, 이에 수반되는 녹니석 광화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함경남도 利原 지역에서도 녹니석을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니석은 위 지역 외에도 모든 열수광상의 모암반지질대에서 흔히 발견된다. 한반도의 각종 열수광상은 거의 전국적인 분포로 잔존하며 대부분 가행된 바 있는 광상이다.¹⁰ 따라서 〈석제탁잔〉의 재질로 추정되는 녹니석의 출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내 鑛床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Ⅲ. 〈석제탁잔〉의 조형적 특징

탁잔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잔과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유적에서 한 벌로 구성된 탁잔 전체가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형식 비교가 용이한 잔탁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잔탁의 구조는 잔좌와 탁 구연부, 그리고 탁 굽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잔좌는 잔이 놓이는 받침 부위로 잔모양을 이루는 것과 돌출된 형태가 있다. 이들은 각각 세부구조가 다른데, 잔모양의 것은 기벽이 낮은 잔 형태로 구연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돌출된 잔좌의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윗면과 완만하게 내려오는 측면, 그리고 잔좌 주변으로 오목하게 돌아가는 탁 괴임부의 구조를 갖는다.¹¹ 이와 같이 잔탁은 잔좌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두 종류로

9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에서는 〈뿔 무늬가 있는 녹니석 그릇〉이 전시된 바 있다.

10 김지영, 이찬희, 김진영, 앞의 논문(2008), pp.34-35.

11 잔좌는 잔을 올려두는 기능을 하며, 탁의 기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이운진, 앞의 논문(2008), p.10].

분류할 수 있으며, 양자 간 서로 다른 형태지만 동일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도 2 참조).¹²

- ㉠ 잔모양 잔좌의 구연부
- ㉡ 잔모양 잔좌의 측면



도 2. 잔좌의 구조와 세부 명칭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

<p>덕수 398</p>		
<p>크기 (cm)</p>	<p>총 높이: 10.3, (잔) 높이: 4.2, 구경: 9.5, 저경: 3.4, 두께: 0.2~0.4 (잔좌) 높이: 7.0, 잔좌 구경: 4.3, 탁굽 저경: 3.6, 두께: 0.2~0.5</p>	
<p>덕수 1347</p>		
<p>크기 (cm)</p>	<p>총 높이: 7.0, (잔) 높이: 3.7, 구경: 12.0, 저경: 3.8, 두께: 0.2~0.4 (잔좌) 높이: 4.5, 잔좌 구경: 6.8, 탁굽 저경: 5.4, 두께: 0.2~0.5</p>	

¹² 이윤진, 앞의 논문(2008), p.11에서 전재함.

표 3. 〈석제탁잔〉의 도면

<p>덕수 398</p>		<p>덕수 1347</p>	
-------------------	---	--------------------	--

덕수 398의 경우, 잔 구연은 살짝 외반되었고 굽은 ‘⌋’ 형태로 낮게 깎았다. 내저에는 작은 내저원각이 있다. 잔을 받치는 盞座는 구연이 내만하며 달걀처럼 길고 홀쭉한 형태로 잔좌와 굽 내부가 뚫려있다. 접시형태의 받침부는 안쪽이 오목하다. 굽은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비교적 높은 편이다.

덕수 1347은 석제로 된 기면 전체에 작은 반점이 관찰된다. 잔은 측사면 기울기가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내저가 곡면을 이룬다. 굽은 ‘⌋’ 형태로 정연하게 깎았다. 잔좌는 구연이 내만하고 반구형 잔 형태이며 굽 내부까지 뚫려 있다. 잔의 끝부분은 안쪽으로 말린 형태처럼 도톰하게 처리하였다. 잔탁의 잔좌 내·외면, 그리고 굽 외면에 도구로 깎은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석제탁잔〉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다른 재질의 탁잔은 자기제, 목제, 금속제가 있다. 자기제는 다음 장에서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므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목제와 금속제 탁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목제는 경북 안동 태사묘에 소장된 〈목제탁잔〉이 대표적이다. 太師廟는 고려 태조 왕건이 안동에서 후백제 견훤을 토벌할 때 활약한 공로로 대광태사라는 벼슬을 받은 權幸, 金宣平, 張貞弼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이곳에는 현재



도 3. 〈목제탁잔〉, 높이 (잔) 4.5cm, (잔탁) 5.5cm, 안동 태사묘 소장, 보물 제451호

각종 비단, 관모, 가죽신, 부채, 도장, 함, 판자, 허리띠 등 12건 22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목제탁잔〉은 내·외면에는 모두 朱漆을 했는데, 잔 굽 안바닥과 잔 받침의 잔좌부터 굽까지 중앙부의 뚫려 있는 내부에는 黑漆을 했다(도 3). 잔은 기측선이 사선형으로 벌어지는 盞형태이며, 잔탁은 높이가 낮은 반구 형태의 잔좌를 갖추었다. 이러한 모습은 덕수 1347 〈석제탁잔〉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유적에서도 목제잔탁이 출토된 사례가 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목제잔탁은 서편 고려시대 남북배수로 바닥층에서 묵서명이 있는 석간과 함께 고려시대 전반기 층위에서 나왔다.¹³ 잔형 잔좌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부가 굽바닥까지 뚫려 있는 형태로, 전면에 黑漆을 하였다. 해저 인양품으로는 태안 마도 2호선에서 조사된 목제잔탁이 있다(도 4). 잔좌의 외면에는 나무를 깎을 때 사용한 물레의 칼날 흔적이 0.05cm 간격으로 남아 있다. 잔좌 내면에 잔을 끼워 사용하는 부분은 조각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마무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잔탁의 굽 접지면이 마모되어 있는 것은 사용흔으로 추정된다. 목재는 사시나무속으로 식별되었으며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해 대략 3번 정도 칠을 한 흔적을 확인하였다. 사시나무속의 나무는 재질이 균일하고 연하여 건조 및 절삭이 쉽고 칠질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앞에서 언급한 세 점의 목제잔탁은 모두 덕수 1347과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모두 칠을 한 칠기이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동채탁잔〉의 구리 안료의 색조가 칠을 한 목제잔탁과 친연성이 높아 양자 간 영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도 5). 금속제 잔탁은 전하는 유물 수가 10점 미만이며, 대부분 돌출형 잔좌를 갖춘 잔탁이다. 잔형 잔좌를 갖춘 잔탁은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銅製盞托〉이 거의 유일하다(도 6). 이 잔탁은 잔좌의 형태가 잔 모양으로 구연이 내만하였고, 전은 두 손으로 받쳐 들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다. 높은 납[鉛] 함유량 때문인지 밝은 유기색을 띠고 있으며 곳곳에 부식된 부분이 관찰된다.¹⁵ 금속제의 경우 수량이 적고 편년과 사용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소재의 중요도로 봤을 때 고려의 최상위층이 다례나 각종 의례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4. 목제잔탁, 잔좌 구경 8.3cm,
태안 마도 2호선 출수



도 5. 〈청자동채탁잔〉, 높이 4.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6. 〈동제잔탁〉, 높이 4.5cm, 구경 8.2cm,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1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Ⅱ』(1996).

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2011), p.326.

15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2006), p.104, 228.

IV. 자기제 잔탁과의 비교를 통해 본 제작 시기

1. 생산유적

생산유적에서 출토된 자기제 탁잔은 잔과 잔탁으로 구성된 한 벌이 아니라 잔과 잔탁이 따로 확인된다. 잔좌가 잔모양인 잔탁이 출토된 고려시대 가마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예로 용인 서리 중덕 요지를 꼽을 수 있다.¹⁶ 전체 출토품 11,372점 가운데 잔탁은 37점(0.33%)이 확인되었다. 특히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까지로 편년되는 한국식 해무리굽 단계의 Ⅲ기층에서 잔모양 잔좌가 출토되었다.

강진 용운리 9호, 10호 요지에서는 총 32점이 출토되었고 잔모양 잔좌가 있는 예는 10호-Ⅱ층에서 내화토모래빛음 받침을 사용한 것이 단 1점 있었다. 강진 삼흥리 D지구와 E 지구에서도 잔모양 잔좌가 확인되었다. 최근에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 가마터 발굴조사 보고서에도 잔모양 잔좌가 있는 잔탁이 모두 확인되었다.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는 잔탁 167점이 출토되었고 그 중에서 잔모양 잔좌인 것은 29점(17.36%)을 차지하고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내화토모래빛음, 규석, 모래 등 다양하며 문양은 이룡문, 화문 등이 있다(도 7).¹⁷

전북 부안 유천리 가마터의 경우 잔탁 108점 중 잔모양 잔좌는 16점(14.81%)이 나왔으며 번조받침은 모래, 규석, 내화토모래받침을 사용하였고 외면에 花文과 雷文을 음각하거나 국화문과 뇌문을 상감한 예도 있다(도 8).¹⁸ 이 밖에 중기로 편년되는 가마터 중에서 부안 진서리¹⁹, 용인 보정리²⁰, 대전 구완동²¹ 가마터 등에서도 잔모양 잔좌를 갖춘 잔탁이 출토되었다.



도 7. 청자잔탁, 높이 4.9cm
강진 사당리 가마터 T4B1 출토



도 8. 청자잔탁, 높이 4.3cm
부안 유천리 가마터 5x2 출토

16 경기도 시흥 방산동 가마에서도 잔모양 잔좌를 지닌 잔탁이 확인되었는데, 반구형 잔좌가 아니고 기층선이 사선형인 잔좌이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 3대 임금인 정종 안릉에서 확인된 잔탁과 유사하다.

17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2015), pp.256-257.

18 국립중앙박물관,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2011), pp.131-135.

19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扶安 鎮西里 靑磁窯址：第18號 窯址發掘』(2001).

20 畿甸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수원: 畿甸文化財研究院, 韓國土地公社, 2006).

21 海剛陶磁美術館, 『大田舊完洞窯址：어청골 靑磁窯址·瓦窯址發掘調査報告書』(2001).

가마터 출토품의 경우 대부분 고려중기에 해당하는 강진 용운리·삼흥리·사당리, 부안의 유천리·진서리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보정리와 대전 구완동 등에서 잔형 잔좌를 지닌 잔탁이 조사되었다. 왕실과 중앙 관청용 자기를 제작했던 사당리와 유천리 출토품은 규석 사용·정밀한 문양·유색 등에서 上品의 가치를 지닌데 반해 다른 가마터에서 나온 잔탁은 사당리·유천리에서 제작된 수량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며, 받침·문양·유색 등에서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것은 같은 형식의 기종이 여러 지역에서 제작되었지만 최종 소비처의 위계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현상으로 생각되며, 사당리·유천리 제작품은 수도 개경이나 경제력이 있는 사찰 등에, 그 외 가마터 제작품은 인근의 지방관청 등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해저유적

자기 유통과정을 보여주는 해저 출수품에서 자기제 잔탁은 보령 원산도 유적과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만 확인되었다. 다량의 청자가 조사됐던 태안 대섬 해역에서는 잔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에서는 잔모양 잔좌와 돌출형 잔좌의 잔탁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규석과 내화토를 받침재로 사용하였고 음각기법으로 뇌문과 화문을 장식하였다(도 9).²²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 조사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잔탁이 조사되었고 이 중에서 잔모양 잔좌를 갖춘 잔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도 10).²³ 1차 보고서에 게재된 잔탁은 두 점 모두 규석을 받쳤으며 음각으로 문양을 장식한 것이다. 한 점은 전 부분에 국화를, 다른 한 점은 草文을 그려 넣었는데, 후자의 경우 잔좌의 내저면이 막혀 있다. 2차 보고서에는 잔모양 잔좌 잔탁이 1점 소개되었다.²⁴ 이 잔탁도 규석을 받쳤고, 잔좌의 내저면은 막혀 있다. 내저면의 안바닥에는 국화문을, 기측면에는 간략화된 당초문을 음각으로 장식했다. 발색이 좋은 유색과 정세한 문양, 작은 규석받침 등으로 보아 上品이라 할 수 있다. 보령 원산도와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인양된 잔탁은 모두 규석받침, 정밀한 문양, 유색의



도 9. 청자음각국화문잔탁, 보령 원산도 해저 출수



도 10. 청자음각초문잔탁, 높이 5.3~5.4cm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2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령 원산도 발굴보고서』(목포: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7), pp.72-74.

2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2015), pp.263-264.

2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Ⅱ』(2018), p.250.

발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급품이다. 이 두 곳의 해저 인양 청자는 기종이 다양하고 품질면에서도 뛰어난 것들이다. 즉 13세기 전반에 강진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개경 또는 강화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저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종·시유·문양·변법 등에서 매우 우수한 최상급 청자가 대부분이어서 왕실 등 최상류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⁵ 향후 좀 더 많은 해저 인양품이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잔형 잔좌를 지닌 잔탁의 경우, 확인된 지역이 보령 원산도와 진도 명량대첩 해역 두 곳뿐이라는 것과 고급의 다양한 특수기종이 함께 나왔다는 점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소비유적

소비유적 출토 잔모양 잔좌를 지닌 잔탁은 사찰·분묘·건물지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개성 고려궁성 유적은 2007~2008년에 걸쳐 1차 시굴, 2~3차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조사되었다. 자기류는 2차 발굴에서 500여 점, 3차 발굴에서 900여 점 이상 출토되었다. 대부분 청자이며 백자·흑유자기·도기도 함께 나왔다. 잔형 잔좌를 갖춘 잔탁은 국화문을 상감하거나 뇌문을 음각한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색에 규석을 받쳐 번조한 최상품이다.²⁶ 고려중기 국립숙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파주 혜음원지에서도 잔모양 잔좌를 갖춘 잔탁이 3점 출토되었다.²⁷

전남 靈巖 天囯寺址에서는 목탑지 남서쪽 ‘나 지구’에서 잔탁 2점이 조사되었다.²⁸ ‘나 지구’는 한국식 해무리굽완과 퇴화 해무리굽완, 반구병의 구연부와 뚜껑, 압출양각된 발, 팽이형 잔 등이 출토된 곳이다. 두 점 모두 잔형 잔좌에 몸체 중앙이 뚫린 형태로, 굽 접지면에 내화토 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전남 화순군 雲住寺址에서도 잔탁이 3점 확인되었다.²⁹ 발굴조사를 통해 11세기 전반기에 창건되어 조선시대 정유재란까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찰의 중심 가람이 위치한 용강리 건물지에서 출토된 잔탁은 뇌문과 국화문이 음각으로 장식되었고 규석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한 것이다. 경북 경주시 錫杖寺址는 내저원각이 있는 해무리굽완과 과형병, 잔탁, 잔, 접시가 출토되었는데, 잔탁은 중앙이 뚫려 있으며 잔좌의

2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7), pp.107-108.

26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2009).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中間報告書』(2003); 同著,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報告書-1차~4차』(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6).

28 순천대학교박물관, 『영암 천황사Ⅱ-2·3차 발굴조사 보고서』(2005).

29 전남대학교박물관, 『운주사 I』(1984); 『운주사 II』(1988); 『운주사 III』(1990); 『운주사 IV』(1994).

구연과 굽 아랫면에 뇌문대를 음각했다.³⁰ 이 밖에도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³¹, 익산 왕궁리 유적³², 배리석불입상 주변 건물지³³, 경남 양산 신기동 유적³⁴ 등에서도 잔형 잔좌를 갖춘 잔탁이 인되었다.

분묘 유적에서는 강
화 熙宗(1181~1237)
碩陵 출토품이 주목되
다.³⁵ 발굴조사 결과 여
러 차례 도굴이 되었지
만 완·발·접시·매
병·뚜껑 등이 확인되
었다. 잔탁은 석실 내부



도 11. 강화 회종 석릉 출토 청자잔탁

에서 4점, 도굴갱 부근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잔형 잔좌를 갖춘 잔탁은 석실내부에서 3점 나왔다. 모두 문양은 없으며 내화토빛을 받침을 사용해 번조하였고 잔탁 내부가 뚫려 있다(도 11).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삼화사 뒷산에 위치한 삼화동 유적은 石室墳으로, 고려 자기·중국 자기·도기·청동기·석기 등 다양한 재질의 부장품이 확인되었다.³⁶ 잔탁 3점 모두 잔모양 잔좌를 갖추었으며, 그 중 한 점은 螭龍文이 음각되었다(도 12). 忠州 丹月洞 유적³⁷의 7호 석곽묘에서는 잔탁과 함께 잔·발·접시·도기매병 및 동전이 출토되었다. 팽이형 잔은 대표적인 고려중기 잔으로, 잔형 잔좌를 갖춘 잔탁과 한 벌을 이루는 예를 보여준다. 접시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했다.



도 12. 동해 삼화동 석실분 출토 청자잔탁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비유
적 출토 잔모양 잔좌
를 갖춘 자기제 잔탁

은 고려중기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나왔거나 대표적인 고려중기 청자와 함께 조사되어 그 중심시기

3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석장사지』(1994).

31 목포대학교박물관,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1996).

3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발굴중간보고 Ⅲ』(2001).

3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긴급발굴조사보고서 I』(1992).

34 慶南發展研究所 역사문화센터, 『양산 신기동 건물지 창녕 교하리 유적』(2006).

35 국립문화재연구소, 『江華碩陵』(2003).

36 정양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고고미술』129·130(1976), pp.190-199; 장남원,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 출토 도자의 검토」, 『동해 삼화사와 고려고분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2017).

37 충주박물관, 『충주 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1992).

가 고려중기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생산유적·해저유적·소비유적으로 나누어 자기제 잔탁을 살펴본 결과, 잔모양 잔좌를 갖춘 잔탁이 조사된 생산·해저·소비 유적이 시기적으로 고려중기에 해당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고려 도자의 흐름은 크게 초기·중기·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중기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중반에 이르는 150여 년에 해당한다.³⁸ 이 시기는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을 중심으로 비색과 상감으로 대표되는 최상급의 다종다양한 자기를 제작하고 소비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석제탁잔과 재질 면에서는 다르지만 동시기에 같은 형태의 잔탁이 다양한 재질로 변안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자기제 잔탁의 제작 및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석제탁잔의 중심 사용 시기도 고려중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잔형 잔좌를 갖춘 자기제 잔탁은 극소량으로 확인되는, 특수한 용도를 위한 기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산유적에서는 주로 왕실과 중앙관청용 자기를 중심으로 제작했던 강진과 부안에서 확인되었다. 해저유적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유물이 조사된 태안 대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급청자가 중심인 보령 원산도와 진도 명량대첩로 해저유적에서만 각각 2~3점 확인되었다. 소비 유적은 개성의 고려궁성, 파주 혜음원지 등 왕실 관련 유적에서 주로 잔탁이 나왔다. 분묘 출토품 역시 희종 석릉을 비롯하여 왕릉이나 다량의 물품이 함께 부장된 특수한 계층의 무덤에서만 확인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잔모양 잔좌를 갖춘 잔탁은 고려중기라는 특정 시기에 비교적 위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은 그동안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1900년대 제실박물관(후에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 확보 정책에 따라 구입되었으며 그 중 덕수 1347 탁잔은 출토지가 ‘개성 부근’이라고 되어 있다. 재질분석 결과 녹니석으로 밝혀졌는데, 녹니석은 입자가 조밀하고 경도가 높지 않아서 공예품 제작에 선호하는 재질이다.

본고에서는 석제탁잔의 제작 시기를 유추하기 위해 자기제 잔탁 가운데 잔모양 잔좌를 갖춘 예를 중심으로 생산유적·해저유적·소비유적 출토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진서리, 용인 보정리, 대전 구원동 등 고려중기 가마터에서 주로 출토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저유적에서는 고려중기에 해당하는 고급 청자가 다량 출수되었던 보령 원산리와 진도 명량대첩 해역에서 확인되어 수도 개성의 최상위 계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유적 출토품은 개성의 고려궁성, 파주 혜음원지, 강화에 있는 희종 석릉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편년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제 잔탁 편년을 근거로

38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서울: 해안, 2006), pp.317-318.

삼은 것은 어려운 시도였지만 비교 결과, 잔모양 잔좌를 갖춘 청자 잔탁의 경우 대부분 고려중기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확인되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의 편년도 같은 시기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잔탁이라는 기종을 석제·자기·목제·금속 등 다양한 재질로 변안하여 제작했던 고려시대 공예품 제작의 한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여러 소재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재질 간 위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박물관 소장품 중 개성 부근 출토품을 심도 있게 조사하면 〈석제탁잔〉과 같은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등장하여 고려시대 공예사 연구에 중요한 指標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19. 3. 20. | 심사개시일 2019. 4. 12. | 게재 확정일 2019. 5. 16. |

- 慶南發展研究所 역사문화센터, 『양산 신기동 건물지 창녕 교하리 유적』, 2006.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 긴급발굴조사보고서 I』, 1992.
- 국립문화재연구소, 『江華碩陵』, 2003.
- _____,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06.
- _____, 『개성 고려궁성』, 2009.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 1996.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발굴중간보고 III』, 2001.
-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 국립중앙박물관,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1.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박물관 100년사 : 1909-2009』, 2009.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령 원산도 발굴보고서』, 목포 :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7.
- _____,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1.
- _____, 『진도 명랑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5.
- _____, 『진도 명랑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II』, 2018.
- 畿甸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亨里 靑磁窯址』, 수원: 畿甸文化財研究院, 韓國土地公社, 2006.
- 김윤정, 「12세기 고려청자 螭龍紋의 圖像의 특징과 연원」, 『미술사학』 35, 2018.
- 김지영, 이찬희, 김진영, 「보성 거석리 및 해남 분토리 유적 출토 녹니석제 구슬의 재질특성과 원산지 해석」, 『보존과학회지』 23, 2008.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中間報告書』,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報告書-1차~4차』,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6.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석장사지』, 1994.
-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 2000.
- 목포대학교박물관,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1996.
- 손영옥, 「이왕가박물관 도자기 수집 목록에 대한 고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5, 2018.
- 순천대학교박물관, 『영암 천황사 II-2 ·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5.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 : 第18號 窯址發掘』, 2001.
- 이운진, 「高麗時代 瓷器鑒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준광, 「고려 螭龍文 청자의 특징과 용도」, 『미술자료』 92, 2018.
-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서울: 해안, 2006.
- _____,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 출토 도자의 검토」, 『동해 삼화사와 고려고분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7.
- 전남대학교박물관, 『운주사 I』, 1984; 『운주사 II』, 1988; 『운주사 III』, 1990; 『운주사 IV』, 1994.
- 정양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고고미술』 129-130, 1976.
- 충주박물관, 『충주 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 충주: 충주시, 1992.
- 海剛陶磁美術館, 『大田舊完洞窯址 : 어청골 靑磁窯址·瓦窯址發掘調査報告書』, 2001.

Introducing *Stone Cup and Stan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Kyungnam Kang*

It has been widely known that most Korean *takjan* (a set consisting of a cup and stand) were made from ceramics, and a relative few were made of metal or wood. However, in 2018 a stone cup and stand set was introduc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t the special exhibition *Goryeo: The Glory of Korea*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 *takjan* consists of a cup and matching stand. During the Goryeo Dynasty, cups and stands were made from various materials, including celadon, white ware, metal, and wood. The diameter of the mouth of most cups was around 10 centimeters. According to their forms, cups can be classified as bowl-shaped, hemispherical, or flower-shaped. Stands, or *jantak*, in the shape of a footed saucer were used to support the cups. The *janjwa*, the base on which the cup rests, reflects the role of the stand and determines its overall form. Unlike cups used as stand-alone vessels, stands were used only as support for cups. They were consequently modeled specifically for their practical application. *Takjan* have been considered significant artifacts since they reflect the social demands and background of the time at which they were used, the tastes of their users, and their production techniques. Only a few complete *takjan* sets remain.

The stone cups and stands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ere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on acquisition policy of the Imperial Household Museum (later the Yi Royal Household Museum) in the 1900s. Among them, one set (duksu 1347) is known to have been excavated near Gaeseong. Material analysis has revealed that this set is made of chlorite. Due to its dense particles and workability, chlorite is a preferred material for crafting.

In order to estimate the production period of this stone cup and stand, this article examines cups and stands made in celadon and white ware with cup-shaped *janjwa* recovered from underwater sites related to maritime routes and other historical sites related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 Associate Curator, Fine Arts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celadon *jantak*. Sites related to production were kiln sites dating to the mid-Goryeo period in Sadang-ri, Gangjin; Yucheon-ri and Jinseo-ri in Buan; Bojeong-ri in Yongin; and Guwan-dong in Daejeon. As for the underwater sites, a considerable volume of mid-Goryeo celadon of fine quality has been excavated from the waters off Wonsando Island, Boryeong and near Jindo Island where the Battle of Myeongnyang took place. This indicates that the celadon was produced for the uppermost class of people in the capital Gaegyeong. Moreover, excavated relics related to consumption have been found in several sites, including the Goryeo Royal Palace in Gaeseong, the site of Hyeeumwon Site (the Goryeo national lodging facility) in Paju, and Seokneung Royal Tomb of King Huijong. Due to a lack of comparable dated stone cups and stands, it was difficult to date the stone cup and stan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ased chiefly on existing dated celadon and white ware cups and stands. Despite this difficulty, it has been presumed that the stone cup and stan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as produced roughly within the same time period as most celadon cups and stands with cup-shaped *jantak* from the mid-Goryeo era.

This research on *jantak* (cup and stand) illuminates the Goryeo Dynasty trend of producing cups and stands in diverse materials, including stone, ceramics, wood, and metal. However, it is believed that a hierarchy existed among these materials.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other artifacts in the collec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excavated near Gaeseong should lead to the discovery of items in new materials, such as this stone cup and stand, which will provide significant information on the history of craftwork during the Goryeo Dynasty.

Keywords: *Takjan* (Cup and Stand), *Jantak* (Cup Stand), Chlorite, Duksu Collection, Vicinity of Gaeseong, Mid-Goryeo Period